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5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차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전원도시의 전통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07_표준화	
08_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흐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미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정'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전원도시의 전통

1898년에 출판된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저서 『진실한 개혁을 위한 평화적 방향』¹⁾은 영국의 집합주택에 관한 새로운 개념의 시작을 예고하였다. 이 저서는 네덜란드 집합주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영국의 사회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어 네덜란드에서 하워드 이념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네덜란드는 산업혁명 이후 심각한 도시 부패를 경험한 영국의 전철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모리스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사회·이상주의(social-utopianism)와 반·기술주의 이념(anti-technology views)을 결합시키려고 했던 모리스와 같은 인물의 부재는 물론 하워드와 같은 인물도 네덜란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워드의 저서가 출간될 즈음 네덜란드에서는 주요 개혁을 위한 노력이 새롭게 제안된 주택법의 가결로 진행되고 있었다.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개량 대상으로서의 도시(city and town)를 수용하면서 네덜란드 도시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네덜란드에서보다 더 열악한 도시상황과 보다 강력한 이상주의적 전통으로 개혁에 대한 노력이 도시에 있어서 구성요소를 선택하게 되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 이상주의적 전통이 표명되지는 않아 하워드의 이념을 대부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네덜란드에서 하워드의 공헌은 현실적 감각에 확실한 전원도시 이념의 추정(推定)과 이런 이념을 지역적 여건에 맞

게 통합시키는 것에 있었다. 영국과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의 전원도시 이념은 궁극적으로 도시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과 충돌하지만 결과적으로 통합하는 하워드의 본질적 이념보다 더 폭넓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전원도시 이념은 네덜란드의 도시확장계획과 실제 건설을 위한 계획의 내용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 지테의 도시계획 원리가 미학적 고찰로부터 유추되고 하워드의 이념이 사회학적 고찰로부터 유추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²⁾

이런 두 가지 전통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독일-오스트리아 양식은 네덜란드 도시계획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지테의 사상은 모든 전원도시 이념에 반영되고 있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나라에서 도시확장의 출발점으로서 자기·충족적 공동사회(self-sufficient communities)의 건설보다는 하워드 이념을 적극 도입하였다.³⁾ 특히 네덜란드는 하워드가 제안한 독립적 규모의 전원도시를 계획하기에 충분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전원도시 이념의 도입

어떠한 방법으로 네덜란드에 전원도시 이념이 알려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 건축가 크레르퀴(D. de Clerq)는 1904년 말부터 1905년 초에 걸쳐 공공복지협회에서 그림을 사용하여 강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전원도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네덜란드 건축잡지의 표준이 된 『Architectura』의 1905년 7월호에 소개되었다.⁴⁾

이 잡지는 하워드와 어원이 아닌 프랑스 건축가 레비(G. B. Levy)가 언급되어 있었

다. 여기서는 영국에서 이미 전원도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었다. 1904년에 출간된 레비의 저서 『전원도시』는 이미 하워드의 이념을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하였다.⁵⁾

다음 해인 1905년 8월, 벨기에 리제(Liege)에서 개최된 「주택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영국식 단독주택의 옹호자와 독일식 집합주택 형태의 옹호자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 네덜란드인 리델(J. Bruinwold Riedel)은 베를린과 같은 도시가 전원도시 건설로 가기에 이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⁶⁾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반대 입장은 영국에서보다 대륙에서 더 분명해졌다고 하여도 네덜란드에서 리델이 소개한 하워드 이념은 본래 사회적 비전에 대한 순수성이 무시되어 있었다. 리델은 1905년 영국에 체재하고, 다음 해인 1906년 1월에 출간된 저서 『전원도시』의 서문에 서명하였다. 이 책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다지 논쟁거리는 되지 못하였으나 하워드 마그넛 다이어그램(magnet diagram), 전원도시 다이어그램 그리고 전원도시 센터 구상을 처음으로 네덜란드어로 소개하였다. 하워드의 독일어판은 1907년이 되어서야 출간될 수 있었다.

리델은 공공복지협회의 총서기로 있는 동안 크레르퀴와 협력하여 지방에서 전원도시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였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전원도시에 관하여 그다지 흥미를 갖지 못하였다.⁷⁾

리델은 도제제도(apprentice system), 공개교육(extramural education) 그리고 노동자용 정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1) 1902년 Garden Cities of Tomorrow로 재판(再版)되었다.

2) Weiger Bruin, Ebenezer Howard-Tuinstdeden van Morgen의 취임연설 Wageninngen(1947)참조.

3) Peter Batchelor, The Origin of the Garden City Concept of Urban Form.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28, No.3(1969), pp.184-200.

4) Belenastelling voor Tuinstdeden, Architectura, 13, No.30(1905), pp.248-249.

5) Francoise Choay,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p.31.

6) J. Bruinwold Riedel, Tuinstdeden (Utrecht, 1906), p.69.

7) J.P. Fockema Andreae, De Hedendaagsche Stedenbouw (Utrecht, 1912), p.101.

전원도시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용 정원』이라는 테마로 1905년 출간하고, 1906년 이를 수정, 보완하여 『전원도시』라는 명칭으로 다시 출간하였다. 그는 노동자용 정원을 ‘예방 수단의 장치’로 묘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⁸⁾

“건강, 변연, 도덕성, 가족주의 그리고 태만과 알코올 중독의 예방”⁹⁾

리델은 ‘노동자에 유익한 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노동자용 정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전원도시 이념에 주목하였다. 리델은 프리츠(Theodor Fritsch) 이론을 만들고 하위드의 획기적인 저서가 출판되기 2년 전에 『미래도시』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이 저서는 리델이 언급하기 이전 네덜란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23년 쓰비어스(L. Zwiers)는 “프리츠의 작업은 하위드의 작업과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이론적 측면에만 해당하는 것이다.¹⁰⁾

하위드와 프리츠의 유토피아적 이념에 대한 대중의 관심 부족은 브라리쿰(Blaricum)과 부섬(Bussum)의 정착지가 지나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프리츠 이론을 과도한 사회민주주의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리델의 저서는 전원도시(garden city)와 전원교외(garden suburb)와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드 이념을 변전시키는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흐네타 공원단지(Agnet Park)와 포트 선라이트(Portsunlight)를 구분 짓는데는 실패하였다.¹¹⁾

리델은 아흐네타 공원단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한편 도시성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배후지(hinterland)에

있어 도시의 자연적 활동이 존재 가능하다는 그의 믿음은 전원도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적한 것과 같이 가능한 자연적 운동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의 심장부로부터 외곽으로 그리고 도시의 외곽으로부터 배후지로 확대되어 간다.”¹²⁾

1912년 안드레(Fockema Andreae)는 전원도시를 ‘시골에서의 생활’이라고 묘사하였는데,¹³⁾ 이에 대해 아범 출신의 건축가 페인스트라(G. Feenstra)는 이를 네덜란드적 발상이라고 전제하고 순수한 전원도시를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페인스트라는 전원 빌리지(tuindrop)와 전원도시계획(tuinstdadsbebouwing)이라는 언어는 독자적으로 네덜란드 전원도시 이념의 적용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¹⁴⁾

그러나 유토피아적 전통이 결핍되고 건설 가능한 토지의 부족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은 네덜란드 서부지역에서는 순수한 형태의 하위드 이념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았다.

네덜란드의 지리적 특성으로 볼 때 대규모 계획이 적당치 않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도로망과 상하수도 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었다. 특히 하수도 설비는 평탄한 지반이 요구되어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다. 실제, 저밀도 건설과 1주거 당 녹지면적의 증가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언제라도 건설 가능한 토지공급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토지의 공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였다.

낭만주의

전통적으로 순수예술에서 낭만적 풍경을

볼 때 네덜란드는 영국만큼 뚜렷하지 못하다.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네덜란드의 다양한 옹호는 비교적 낭만적이며 반도시적이었다. 1905년의 시점에서 리델은 거대도시의 결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였다.

“높은 세금, 주택의 높은 가격, 높은 사회보장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존재와 다른 한편으로 백수(gadabout), 여가생활의 감소, 동요(agitation), 신경성, 과로, 냉소 이런 것들은 자연, 단순함 그리고 생활에서 분리된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 무엇이 도시의 이상적인 팽창(hypertrophy)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¹⁵⁾

전원도시에 대한 리델의 관점은 하위드가 계획한 것과 같은 공업도시의 대체보다도 더욱 상류계급의 현실 도피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전원생활의 낭만성 또한 전원도시 이념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낭만주의는 모리에에서 사회주의자 폴락(Henri Polak)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적 파벌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¹⁶⁾

하위드와 마찬가지로 페인스트라는 전원도시를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조화시킨 것으로 인식하였다. “공간,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 그리고 빛과 공기”¹⁷⁾

전원도시는 일찍부터 건강을 고려하여 건설되었다. 1912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어린이 건강과 환경 사이의 공존관계를 보여주는 포트 선라이트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져 있다.¹⁸⁾ 전원도시는 건강한 생활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청년조직’과 같은 그룹이 농촌과 신체적 건강에 관하여 동시에 강조하였다.

8) S. J. Fockema, The Garden City Idea in The Netherlands Before 1930, Stedebouw & Volkshuisvesting, 44(1963), pp.95-107을 참조.
 9) Riedel, Tuinsteden. 페이지가 없는 첨부물에 게재되어 있다.
 10) L. Zwiers, Kleine Woningen (Amsterdam, 1923), p.36
 그러나 후디흐는 네덜란드 도시계획의 전개에 관한 해설에서 프리츠(Fritsch)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D. Hudig, Stedebouw, p.64를 참조.
 11) Fockema Andreae, De Hedendaagsche Stedenbouw, p.101.
 12) Riedel, Tuinsteden, p.75. 13) Fockema Andreae, p.102.
 14) G. Feenstra, Tuinsteden en Volkshuisvesting in Nederland (Amsterdam, 1920), p.56.
 15) Riedel, p.72. 16) Henri Polak, Het Kleine Land en Zijin Groote Schoonheid (Amsterdam, 1941).
 17) Feenstra, p.55.

가족주의

하워드의 목표중 하나는 초기 공업지대의 거주지에서 볼 수 있었던 가족주의(paternalism)의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898년 이후 전원도시 이념을 적용한 산업주지자들은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와 이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지도록 세뇌시켰다. 이와 유사한 윤리적 기대는 1922년을 기점으로 네덜란드 전원도시 이념이 최고조에 달하여 주택건설로 이어졌다.

리델은 “명예와 단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집단으로서 부분적으로 전원도시가 언급되어, 이런 접근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리델은 하워드의 모델에서 지적인 상호보완적 형태를 강조하지는 않았다.¹⁸⁾

1912년 안드레는 전원도시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적 요소를 관찰하였는데, 여기서 도덕적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유지를 위한 장려, 주기적으로 음주금지 등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필요성 그리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이었다.²⁰⁾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몇 가지 사례로서 기능주의자들은 환경이 신체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상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전원도시의 이념을 동반한 가족주의는 새로운 공업지대에 전원도시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헨헤로의 어뜨 란싱크(Het Lansink), 아인트호번의 필립스도로프(Philipsdrop, 그림 1~3)와 로테르담의 헤이플라트(Heyplaat, 그림 4~6) 전원단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1900년 이후 석탄공업이 부흥했던 림부르흐(Limburg)의 남부지방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국립 광산지역에서 1911년과

1913년에 각각 설립된 건설조합-온스 림부르흐(Ons Limburg)와 띠인디흐(Tijdig)-은 최초의 발전모델로서 영국의 전원도시 이념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들 조합의 원조를 받은 건축가 스튜이트(Jan Stuyt, 1864~1932)는 영국으로 견학 여행을 간 바 있다. 그는 특히 레츠크워드(Letchworth) 전원도시에 관심이 많았다. 1914년 그는 기존도시와 계획 중인 광산의 중간지점에 전원도시를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레츠크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광산 노동자를 위한 1,000세대와 공무원, 관리인 등을 위한 400세대를 포함하고 있다. 미완성으로 끝난 이 계획은 반도시적이며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적 구조를 보존하는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²¹⁾



그림 1. 바젤 + 한라스 + 손호, 필립도르프사 공장노동자를 위한 주택단지의 전경(아인트호번), 1910-17

필립도르프사는 레고트(Regout), 마르겐과 같은 기업가들이 추진한 노동자를 위한 주택건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으나, 이 단지에는 마르겐과 같은 시중일반 목적도 헤이플라트(Heyplaat)와 같은 다양한 공유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오로지 전원도시 이념만을 말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장노동자용 주택단지가 기업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나, 1902년 제정된 주택법에 따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단지로 이사 온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농촌에서 전입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각 세대가 단독주택과 같은 성격을 갖도록 각 세대의 뒤쪽에 개인 정원을 배려한 것에 있다. 이곳에서는 주택의 앞과 뒤라고 하는 이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주택의 앞부분은 공간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는 대신 뒤쪽은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유토피아와 자기·충족성

전원도시형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이상주의적 시도는 네덜란드에서 완전한 실패로 끝날 운명이었다. 아마 이런 요인은 거의 순수할 정도의 현실 도피주의적 성격에 있다고 본다. 에이던(Frederik van Eeden, 1860~1932)은 토로(Thoreau)로부터 자극을 받아 1898년 부섬(Bussum)에 바르덴(Walden)을 설립하였다. 이 조지는 '정제된 정신적인 내용'을 갖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²²⁾ 그러나 바르덴은 건축가 윌리엄 바우어(William Bauer)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²³⁾

뷔드벨드(Weijdevelde)는 에이던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²⁴⁾ 에이던의 영향은 잡지 「더 피오니어(De Pionier)」를 통하여 보다 강력해졌다. 이 잡지는 에이던의 편집감독 아래 1901년 설립된 공유자산협회(Communal Property



그림 2. 주거동의 앞부분 전경



그림 3. 주거동의 뒷부분 전경

18) Fockema Andreae, p.99.

19) Riedel, p.7.

20) Fockema Andreae, p.101.

21) Nic.H.M. Tummers, Carboonkolonisatie, Wonen-TA/BK, No.11(June 1974), pp.5-28을 참조.

22) S.J. Fockema, p.97.

23) 뷔덴(Welden)이나 전원도시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관련된 바우어(Bauer)의 드로잉은 암스테르담의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aukunst에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

24) Frank, Michel de Klerk, p.54.

Ownership Association)의 기관지로서 1902년부터 1912년까지 출간되었다. 이 잡지는 네덜란드 전원도시운동(Dutch Garden City Movement)의 대변자로 공헌하였다.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또 다른 이상주의적 형태는 1905년 헤이그의 외곽에 바젤(De Bazel)이 계획한 국제세계도시(International World Capital)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바젤은 이전보다 더 초연하고 아카데미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었다(본지 9월호 참조). 이 계획은 하워드의 다이어그램(Howard's Diagram)과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특히 바로크 시대에 발달된 오래 전통의 중심화와 방사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베를라헤는 1908년 헤이그의 확장계획에서 거의



그림 4. 반데르스, 헤이플라트 전원마을의 전경 (로테르담, 드로호프사), 1915

이 단지는 전원마을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이념이 결핍되어 건설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로테르담시(市) 중심부와 부두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부두시설 근처에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전원마을은 다른 집합 주택 계획과 마찬가지로 지태와 어원의 영향을 받았다. 제공된 공유시설의 용도는 대단히 광범위하지만 모든 시설은 회사의 도덕적 가족주의(moralistic paternalism)의 문맥에 포함되었다. 이 전원마을은 1902년 제정된 주택 법의 자금지원에 따라 성공할 수 있



그림 5. 출입구 쪽의 전경

사실에 가깝게 하워드의 다이어그램 이론을 적용하였다(본지 9월호 참조).

전원도시를 구도심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접근-이것은 하워드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은 1920년 이전에 유효하였지만 현재는 전원도시 지역과 구도심지와의 사이 공간을 채우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충족성(self-sufficiency)이라는 이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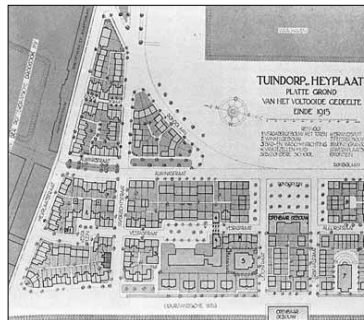


그림 6. 배치도

- 1) 집회실 2) 상점 3) 대중목욕탕 4) 독신자용 주택 5) 전문학교
- 6) 소방서 7) 취사장 8) 관리사무소 9) 작업장 10) 분수



그림 7. 베를라헤의 초기계획+ 로스(De Roos)와 오버레인더

(Overeinder)의 건축담당+ 모리에,

페로하언과 쿡(건축과 확장계획 담당), 프레이베의 전원마을 단지의 전경(로테르담, 프레이베의 주택건설회사), 1916~19, 1933 1913년 완성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기 충족형(self-standing) 전원마을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21년 모리에는 프레이베의 전원마을을 로테르담시 확장계획의 일부로 편입시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초기 베를라헤 기본계획은 모리에의 확장 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폐쇄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하학적으로 규칙성을 갖지 못하였다. 당시 건설중인 로테르담의 알 코브형 집합 주택과 비교하여 가격면에서 경쟁 가능하도록 시도되었다.

또한, 모리에는 주거건물의 배치를 남북축 방위로 하였다. 프레이베의 전원마을은 하워드의 사회주의 이념과 달리 진행된 것으로 네덜란드 전원도시 이념의 프로그램이 열악하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원마을은 '자연(nature)'이라고 하는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낮은 인구밀도의 단독주택과 같은 맥락이다. 다양한 도시적 기능이 결여되고, 또한 유기적 조직성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더 아흐드와 오버바우의 건축가들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네덜란드인에게는 이질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하워드에 있어서나 나중의 르 꼬르뷔제에 있어서나 거의 마찬가지이다. 프레이베(Vreewijk)전원마을(그림7~11)의 설립자는 이 마을을 도시로부터 떨어진 곳에 만들려고 하였지만 1921년까지 이 전원마을의 주임 건축가인 모리에(Granpre Molier)는 로테르담시 확장계획의 일부로 통합할 것을 고려하였다. 당시 모리에는 프레이베의 전원마을을 '전원마을도 아니고 평가도 좋게 받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⁵⁾

전원도시 지역이 도심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는 수역(水域)에 의한 분리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분리는 헤이플라트(Heyplaat) 집합 주택과 로테르담시 중심부 사이, 혹은 오스트싼(Oostzaan) 및 니 위 웬담(Nieuwendam)전원마을과 암스테르담시 중심부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계획의 모든 사례는 지자체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21년 암스테르담시가 와테르그라프스메어(Watergraafsmeer)마을을 합병한 사례와 같이 지자체에 의해서 거주지 외곽부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경향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바젤과 베를라헤에 의해서 지적된 독립적인 전원도시의 비전은 1929년 암스테르담시 시의회 의원인 미란다(Miranda)가 암스테르담시의 동쪽 어트 호이(Het Goo)에 전원도시를 설립하기 위해 1906년 리델의 제안은 재생시킬 때까지 지속되었다. 미란다는 두 지역을 철도로 연결시켜 암스테르담시의 교외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²⁶⁾ 리델은 암스테르담시 전원도시위원회 위원의 대다수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25) Granpre Molier, Een Rondgang in het Eerste Rotterdamse Tuindorp, Tijdschrift voor Volkshuisvesting, 2, No.6(1921), p.161.

26) S. J. Fockema, p.106.

는 예측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대중의 지지와 토지의 획득에 대한 어려움이였다.²⁷⁾

베를라헤

일반적으로 베를라헤의 작업은 강한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원도시 이론과 대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지만 결코 전원도시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베를라헤는 전원도시 이념을 도시의 확장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00년부터 1905년 사이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을 위한 베를라헤의 작업은 전원도시의 요소가 반복하여 응용되고 있었다. 1915년에 작성된 수정 계획안(본지 9월호, p.76. 그림11 참조)에서는 전원도시의 성격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가지 전원도시 요소는 합리화되었다.²⁸⁾

베를라헤와 암스테르담시 주택국 국장 게플러는 영국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면서 전원도시 이념의 해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베를라헤는 1913년 중반 무렵, 제로테르담시 전원마을(Eerste Rotterdamsche Tuindrop)의 책임자로부터 계획을 위탁받았다.²⁹⁾ 그리고 같은 해 11월까지 프레이베익(Vreewijk) 전원마을의 1차 계획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1916년까지 이 계획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물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확장된 하수구가 설치되었고, 도로는 약간 굽어서 베를라헤가 자주 사용하는 폐쇄적 접근이 나타나 있었다. 전체적인 폐쇄성과 저밀도는 헤이플라트집합주택을 제외하고는 로테르담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였다.

당시까지 베를라헤는 어윈의 저서 『도시 계획의 실천』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1906년 어윈이 주관하는 워크숍 '가로와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과 레이아웃'에 참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건축가 회의'에서 이미 어윈을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³⁰⁾ 1918년 베를라헤는 어윈의 작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주택의 표준화』라는 작은 책자에 어윈의 도면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베를라헤가 암스테르담의 트란스발 근린자구에 계획한 집합주택은 일찍이 함스테드 전원도시에서 시도된 계획을 적용하려 한 사례였다(그림 12~14).

베를라헤가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공감(共感) 그 이상의 지향은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에서 그의 선택이 확실히 나타나 있으며, 얼마 후 민주적 기술·건축사로 구성된 사회기술 협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전원



그림 8. 배치도



그림 9. 전체 전경

1930년 로흐헬에 의해서 '농가형 주택(farmers housing architecture)'이라는 레데르가 붙여진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은 원칙적으로 코뮤니티, 노동운동,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건축의 이념적 발전이었다. 그러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은 신즉물주의 집합주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높은 상징성이 함유하고 있다는 초월론적 가치의 표현으로서 고려되어 왔다.

도시 지역을 위한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를라헤가 설계경기에서 1등으로 당선된 계획안을 암스테르담시 남부 확장계획안(1915)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베를라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암스텔(河)과 페르디난트 볼스트라트 거리의 중간에 위치한 트롬 거리의 남쪽, 57헥타의 부지에 전원도시가 계획되었다. 설계자는 현재 전원도시 운동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이와 같은 지역이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디자인의 기초로서 베를라헤는 당시에 실시된 설계경기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렘코(Mr. Repko)의 계획안을 자신의 계획에 반영하였다. (생략) 설계자는 렘코로부터 이 계획을 채택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³¹⁾

따라서 베를라헤는 기본적으로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



그림 10. 도로 속에서 본 전경



그림 11. 주택단지내 호수가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27) Riedel, p.85.

28) 베를라헤가 1915년 전원도시 운동을 '단번에 거절하였다' 라고 언급한 기디온(Giedion)의 시점은 옳지 않다. Space, Time and Architecture, 제5판(Cambridge, Mass., 1967), p.801.

29) Freek Sleeboom, Vreewijk, Project Rotterdam, 미 간행논문 (Utrecht, 1972), p.10을 참조. 네덜란드 국내에서는 베를라헤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의 역할에 관하여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것은 1916년에 출판된 Dr. H.P. Berlage en zijn werk에서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Granpre Moliere, Dr. H.P. Berlage en de Stedebouw. H.P. Berlage 21 Februari 1856-12 Augustus 1934를 참조). 이것은 베를라헤 작고를 추모하기 위해서 Bouwkunding Weekblad-Architectura에서 발간된 도서이다. Arbeiderswoningen in Nederland(Rotterdam, 1921)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에 관한 기사 내용에서 베를라헤의 이름이 언급되어있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30) Transaction of S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itects, 1906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런던에서 개최. (Londen, 1908), p.301.

31) H.P. Berlage, Memorie van Toelichting, p.907.

과 같이 그 자신이 평가한 계획을 나중에 노동자 전원도시 지역³²⁾이라고 언급한 것도 알 수 있다. 베를라헤의 과격성은 도시 계획에서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1918년 2월, 「암스테르담 주택회의」에서 제안된 표준화에 대한 원리가 이 지역에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베를라헤는 전원도시의 이념이 개방적이고 저밀도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런 전원도시 지역은 도시직물로서 가장 도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베를라헤의 전원도시 이념은 최소한의 녹지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1915년 자신이 심사위원장으로 있던 심사위원회에서 “전체계획은 그다지 전원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건설은 주로 폐쇄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이다³³⁾”라고 언급하고 있다.

베를라헤는 깨플러의 영향으로 1915년의 확장계획에 렘코의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깨플러가 당시 설계경기 심사위원회에서 베를라헤의 비서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깨플러는 어윈의 동료였던 파커(Barry Parker)와 가까운 사이였고³⁴⁾, 바커를 통하여 영국식 전원도시의 실무에 정통하였다. 암스테르담시 교외, 블라우베 싯트, 니위엔담, 오스뜨산 그리고 외테르흐라 프스메이어(본지 12월호에 게재예정)에 지어진 4개의 전원지역은 기본적으로 깨플러의 초안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리델은 1906년에 출판된 저서에서 아이 예이(U)의 북부에 전원지역을 건설하는 것을 제창하였다.

분극화와 비평

전원도시 운동이 지나치게 비판을 받게 된 것은 하이드의 이념이 순수한 형태로 적용되

지 못했기 때문이다. 1912년 초기 안드레는 신체적 분리로 인한 결점(결점)이 길어지는 통근시간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통적 점심식사 시간이 저녁식사 시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³⁵⁾

안드레는 전원도시 이념에 반대 의견을 예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네덜란드 지자체의 시스템에 배경을 두고 언급한 것 같다. 새로운 주거지의 대부분이 서민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방 도시의 독립성과 자존심은 인접한 전원도시의 설립으로 지탄(指彈)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전원도시에 대한 이와 같은 불리한 인식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증가하고 있던 비판주의에 대한 예비 징후였다. 이미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의 1차 준공 결과, 전원도시 이념은 주거전용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³⁶⁾

이와 같은 주거전용의 형태는 가끔, 사회주의가 대중화되는 분위기에서 부르주아로서 인식되어 거부되곤 하였다. 더 스테일 이념이 네덜란드에서 성장함으로써 전원도시 미학의 낭만적 편견(bias)이 점차 명백해졌다. 게다가 몇몇의 급진적인 네덜란드 건축가에 의해서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거부는 독일의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하였다.

전원도시 이념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적이었다. 왜냐하면, 전원도시 이념의 다양한 목표는 독일 정부의 지방거주 정책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당시 재농업화(re-agrarianization)는 국가경제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커뮤니티는 급진적인 부류와 보수적인 부류의 생방이 공유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도시라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에서의 전쟁은 도시의 가치를 거부하지는 못하였다.

1920년대 네덜란드에서 전원도시에 대한 비평은 기능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발전되었다. 1928년 다위꺼르는 “전원도시 최대의 결점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커다란 규모에 있다³⁷⁾”고 지적한 바 있다.

몇 년 후 더 아흐드와 오빠우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가는 “유기적인 지구는 도시 내의 주거지구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도시의 주변 어디인가에 위치하여 통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³⁸⁾”고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건축가는 지방의 재정착에 대한 독일의 확신이 점차 보수적인 기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잘 직시하고 있었다.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램메르도르프(Ramerdorf) 지역에서 와이젠호프(Weissenhof, 1927) 집합주택전시회의 반향(反響)으로 건설할 당시의 물리적 형태는 영국의 전원도시 지역을 연상케 하였다.³⁹⁾

전원도시는 확실히 우익(right-wing)정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20년대 초기, 혹은 그 이후 1930년대 전원도시 이념에 대한 로흐헴(J. B. van Loghem/1881-1940)의 초기공감의 전환은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을 농가주택⁴⁰⁾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하여 혹독한 비평을 하였다.

그러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의 성공은 분극화, 즉 정치적 상징주의와 전원도시의 기능적 약점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우드가 설계한 끼프룩 집합주택은 저층과 도로 나열식 주택과 같은 이념이 프레이베익 전원마을과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각 세대가 외부에 정원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었다.

32)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wn, p.45.

33) Jury Rapport, Prijsvraag voor het ontwerpen van een tuinstadwijk, p.14, 민주적 기술자 · 건축가로 구성된 사회기술협회 주최로 1915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34) Creese, The Search for Environment, p.301.

35) Fockema Andraee, De Hedendaasche Stedenbouw, p.103.

36) 단독주택과 전원도시 구상은 본래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전원주택 지역은 전원도시 원리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이 건설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중, 예를 들면 기초파일의 높은 가격은 저층주택의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로테르담의 블뢰호프(Bloemhof)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네덜란드의 지반이 기초파일을 박지 않으면 2층 이하의 건물밖에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R. Blijstra, Rotterdam, stad in beweging (Amsterdam, 1965), p.19를 참조.

37) J. Duiker and J.G. Wiebenga, De Bouw van het Eengezinshuis, Tijdschrift voor Volkshuisvesting en Stedebouw, 9, No.5(1928), pp.88-94.

38) De 8 en Opbouw, De Organische Woonwijk in Open Bebouwing (Amsterdam, 1932), p.11.

39) Barbara Miller Lane,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Cambridge, Mass, 1968), p.211.

40) J. B.van Loghem, Nederlandsche Bouwmeesters: De Kieffhoek te Rotterdam-Architect J.J.P. Oud, De Groene Amsterdammer, 1930년 4월 5일자 내용, p.10.

영향

네덜란드에서 저층 주택(low-rise dwelling)에 대한 선호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전원도시 이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방형 배치계획의 개념, 모든 세대에 전용 외부공간의 설정 가능성, 주택과 자연과의 밀접한 관련성 그리고 주택과 공유시설과의 공존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은 전원도시 이념으로부터 전이된 것이다.

이것은 계획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전원도시의 확장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⁴¹⁾ 이것은 또한 주택의 배치 계획에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구사항이 중요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건축사에게는 반복된 단위로서의 주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시점은 전원도시 운동의 실천에 있어서 하위층이 희망하는 건축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모델(model), 혹은 원형주택(prototype dwelling)이라고 하는 이념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와테르흐라프스 메이어에 있어서 대량생산방식의 경험내지는 배틀라헤가 표준화를 옹호하기 위하여 어원의 이념을 도입한 것과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원도시 이념은 듀독의 지휘로 힐버썸(Hilversum) 개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원도시 이념과 신즉물주의 이념이 접촉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1927년부터 1933년에 걸쳐 푸랑크후르트 주택건설 계획의 감독관이었던 메이(Ernst May)는 1910년 전 후로 어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나의 모든 건설 활동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⁴²⁾

메이가 받은 영향은 네덜란드의 여러 건

축사에게도 영향을 주었지만 특히 스타, 메르켈바하에게 현저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이 두 건축사는 메이가 푸랑크후르트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참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 밖의 신즉물주의 건축사로 다루꺼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930년에 「고층건축」의 테마에서 「대규모 전원도시」⁴³⁾를 제안하였다. 또한 1934년에는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에서 로흐의 제출안과 함께, 고층 탑상 집합주택을 제안한 점에서 동등한 위치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본지 2005년 3월호에 게재예정).

더 아우드와 오빠마우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가는 1932년 「개방형 배치계획을 도입한 유기적 주거지구」의 제안에서 이미 네덜란드 국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전원도시 지구로부터의 영향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니위엔담이라든가 오스트판에 건설된 전원마을은 녹지대, 유희시설, 상점, 클럽시설 등과 공존하고 완전한 가능성을 갖는 주거지구를 공급하는 노력이 돋보였다.”⁴⁴⁾

플레이베익 전원마을은 유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양질로 집단화된 주택과 건물의 성격은 “방위의 정확성, 간결성, 인간적 성격, 섬세함 (생략) 더욱이 개방적 수법에 따른 계획”⁴⁵⁾이라는 이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간적 개방의 준비 단계

개방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개념에 대한 전원도시 운동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배치계획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념적 시점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더 스테일의 공간적 개념은

옥외활동, 위생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가속감(加速感)이 보다 넓게 퍼져 있는 이념에 원점을 두는 전반적인 조류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심층적으로 공간적 개방개념의 심리적 센스는 제1차세계 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다 확실해졌다고 보여진다. 이는 중세적 가치로부터의 마지막 이탈과 관련이 있다.

네덜란드의 주택법은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공간적 조직이 아니고, 지자체에 의해서 제정되는 수많은 조례가 더욱 개방적인 주거지구의 건설을 향해 실험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있었다. 주거의 내부와 외부와의 인접거리 간격은 인구밀도와 공중위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확신에 바탕을 두어 지정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암스테르담시(市) 주택심의회의 제안으로 1909년 부지 내 옥외공간에 공공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폐쇄형 주거공간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⁴⁶⁾

건축가의 실험적 개방형 계획에 대한 비평적 영향은 어원의 「괴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1903)와 『도시계획과 그 실천』(1909), 이 두 권의 저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도시계획과 그 실천』의 영향이 컸는데, 여기에 실려 있는 배치계획안은 1914년 바젤(De Bazel)의 부썸(Bussum) 집합주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의 기본적인 배치계획은 정방형에 가까운 폐쇄형 주택이었지만 주동의 모서리에 세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동의 내·외부 사이에 부분적인 공간의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햄스테드(Hampstead) 전원교외 계획은 『도시계획과 그 실천』에 게재되었으며 1919년 호른(Horn)계획의 기본이 되었다.⁴⁷⁾

41) 헤이플라트(Heyplaet) 마을의 모회사(母?社)에 의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건설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드문 일이다’.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 Korte Beschrijving van het Tuindorp, Heyplaet(Rotterdam 날짜 없음, 1922년으로 추정), p. 29.

42) Creese, p. 316.

43) J. Duiker, Hoogbouw (Rotterdam, 1930), pp. 20-21.

44) De 8 en Opbouw, De Organische Woonwilk in Open Bebouwing, p. 11.

45) Ibid., p. 3.

46) Amsterdamsche Woningraad, Rapport over de Volkshuisvesting in de Nieuwe Stadte Amsterdam

(Amsterdam, 1909), p. 41. 이 심의위원회는 J. ter Meulen, D. Hudig, A. Keppler, J.E. van der Pek, H.H. Wollring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7) Raymond Unwin, Town Planning in Practice (London, 1909), pp. 353-355.

이런 U자형 공간이 개방 중정식 주동(open hofbouw)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형식은 노동자용 주택에 처음으로 적용 되었다고 보여진다.⁴⁸⁾ 개방형에 대한 목표가 남향으로부터 많은 햇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 그다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형태가 브룩(J.H. van den Broek)이 1932년 로테르담의 부루센란(Vroesenlaan) 집합주택(본지 2005년 3월 호에 게재예정)에 도입한 반개방 형태이자 남향인 주동 형식의 선례가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주택의 앞뒤 성격을 축소하기 위해 도입한 U자형 주동과 달리 호른(Hoorn) 집합주택의 입구는 어윈에게 영향을 준 영국의 대학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입구정원의 사례에서 도입된 것이다. 주택의 뒤뜰은 관리를 받고 있는 앞쪽에 비해 여전히 활용되고 있었다.

베를라헤와 어윈의 접촉은 게플러(A.Keppeler)를 제외한 어떠한 네덜란드 전문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었다. 베를라헤는 1919년 암스테르담의 트란스발 근린지구에서 블록의 한 쪽을 개방하는 형식을 채용하



그림 12. 베를라헤+호라타마+베르스테이흐, 시영집합주택(암스테르담, 트란스발 근린지구), 1919
베를라헤는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이 진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어윈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어윈의 영향을 받은 것이 보다 확실해졌다. 일반적인 전원도시 이념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어윈의 이념은 자국인 영국에서 보다 네덜란드에서 더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이 집합주택에서 베를라헤의 계획은 당시 일반화된 가로벽으로 인한 폐쇄형 주동의 이념에서 탈피하여 개방적 주동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윈과 마찬가지로 베를라헤도 모서리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서리를 도로의 교차점으로서의 공간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였다(그림 12~14 참조). 이 계획에 베르스테이흐(Versteeg)와 흐라타마(Gratama)도 참여하였다. 그 결과 어윈의 확신이 결여된 잠정적인 시도였다고 여겨진다. 북측이 개방되었고 그리고 이런 형식의 이점으로 활용가능한 대규모 배치계획의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집합주택에서도 바젤의 부속계획과 같이 모서리의 세대가 생략되었지만 폐쇄적인 감각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은 모서리에 위치한 두 세대의 벽면이 서로 직각으로 모서리에서 보이드(void) 공간을 십자형으로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벽면은 모서리가 개방되어 있지만 공유정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뒤쪽의 부지로 통과하는 기능을 가졌을 뿐이다. 이 계획의 모든 모서리에 이런 방법이 채용된 것은 아니다. 보이드화된 모서리 공간은 크라이판 거리(Kraaipanstraat)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정면의 공간에 대한 균형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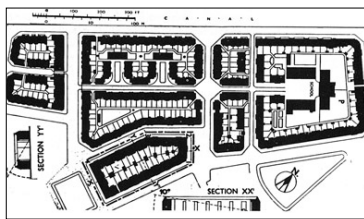


그림 13. 시영집합주택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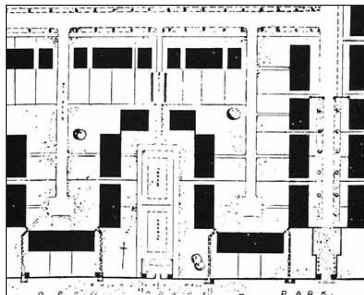


그림 14. 어윈, 도시계획의 실현(런던, 1909)

공간의 일부로 보인다.

그 다음해 같은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 암스테르담 북부의 꼭꼭 거리(Koekoeksstraat) 집합주택의 주동코너 처리는 교차로에서의 미학성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모서리 세대가 비어있지도 않고 뒤쪽 공간으로 유도하는 경사축(斜軸)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차부의 4개 블록은 교차부에 면한 4개의 블록 가운데 주동간 연속적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어윈의 저서 『도시계획과 그 실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동계획이 공간형성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어윈의 작업과 이 이론은 영국의 지자체에 기초한 가로나열형 주택의 단조로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개되었다. 베를라헤와 그 밖의 암스테르담 계획가들은 이런 접근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런 사례는 암스테르담 남부에 있는 헨리테 론너 광장(Henriette Ronnerplein, 본지 10월호 참조)과 세레세 슈바르체 광장(Therese Schwartzplein) 주변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강조된 외부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폐쇄형 주동의 외관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공간적 효과는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개방적인 것이다. 나열형 주택의 전체를 조작한다고 하는 새로운 대담성은 지테와 어윈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것은 이념의 형성 이전에 이루어진 중요한 준비 단계로 후에 발생한 신즉물주의 건축가의 개방형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

48) Mels J. Meijers, De Architecten en de Woningbouw, Bouwkundig Weekblad, 38, No.11(1917), p.65.